

중장년 예비 창업가의 우유부단성이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최진숙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겸임교수)**

정윤희 (부천시 일드림센터 센터장)**

국문 요약

최근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맞물려 중장년의 창업은 제2의 경력으로 주목받는 이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문헌은 중장년의 창업의도 또는 창업 성과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중장년의 창업을 어렵게 하는 선행 요인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향이 있는 중장년의 우유부단성이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예비 중장년 창업가의 실패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영향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45~64세의 창업 의향이 있는 남녀 총 221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우유부단성은 공적 자의식, 외부의 부정적 평가와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는 창업 실패의 두려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검증 결과 모든 가설은 지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중장년의 우유부단성 및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부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는 중장년의 우유부단한 특성과 창업 실패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핵심주제어: 창업을 준비하는 중장년, 우유부단성, 공적 자의식,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창업 실패의 두려움

1. 서론

2024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64~74년생, 954만명, 전체 인구대비 비중 18.6%)가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신규 진입한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장년들의 은퇴 후 취업 대신 소득 창출의 수단으로 중장년 창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국 신규 사업체 중 약 80%가 중장년이 대표인 정도로 중장년은 안정적 소득 재원 마련 욕구를 창업의 형태로 해소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다(한국은행, 2024). 중장년의 개념은 인간의 생애에서 장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사이를 의미하는 말이다. 콜린스 사전에 의하면 중년을 대략 40~59세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40~64세 까지를 중년으로 정의하였다(McLeod, 2008; 양경애·하규수, 2020).

중장년층의 창업은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목받는 이슈의 대상이다. 중장년층의 창업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도 중요하다(홍성표·김민희, 2023). 중장년층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짐

에 따라 은퇴 후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로 하지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양경애·하규수, 2020). 중장년 창업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제 창업한 중장년 창업가에 관한 연구는 창업가의 특성, 지원사업 등 환경적 요인이 창업성과(유상정·양해솔, 2016; 황지영·남정민, 2019)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장년 창업가 개인 또는 환경적 특성 요인들과 창업의도(강유미·김재호, 2015; 양경애·하규수, 2020; 김성식·전병훈, 2021; 이재열·하태관, 2022)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자기효능감, 위험인식, 시스템 설계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탐색이 진행되고 있다(Kong et al., 2020).

창업의도가 창업가 정신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모든 잠재적인 창업가가 창업의도가 있다고 해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창업을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창업가의 창업의도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탐색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Kong et al., 2020).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창업자

* 이 논문은 공동저자 정윤희의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23)에 기초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주저자,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겸임교수, esmile2001@nate.com

*** 공동저자, 부천시 일드림센터 센터장, mrsson0@naver.com

· 투고일: 2024-08-27 · 수정일: 2024-10-10 · 게재확정일: 2024-10-23

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iu et al.(2011)은 창업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개인적 특성과 주변 환경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Kong et al., 2020). 실제로 창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윤승, 2019). 또한,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지금까지도 많은 창업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고윤승, 2019).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의도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탐색하기 위해 중장년의 성격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요인으로 우유부단성과 실패에 두려움을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중장년층의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현실에서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은 쉽지 않다(양경애·하규수, 2020). 창업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머뭇거리거나 미루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창업가의 이러한 특성은 창업 행동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Kong et al., 2020). 모든 개인은 때때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예: 결정 지연, 결정 회피, 결정을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림, 결정한 결정에 대해 걱정). 그렇지만 만성적인 우유부단함은 개인에게 수많은 문제를 안겨준다(Kokkoris et al., 2019). 따라서 창업가의 특성상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고, 역할 상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창업가가 지닌 우유부단함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중장년의 창업과 청년의 창업은 다른 특징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중장년의 창업은 청년 창업에 비해 안정 지향적이며, 둘째, 중장년의 창업은 고위험(high risk)과 고수익(high returns)을 추구하기 보다는 위험을 다소 낮추더라도 사업 및 성과의 영속성을 더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양현봉·김정호, 2022; 유순덕·최광돈, 2015; Autio et al., 2014). 마지막으로, 중장년 창업은 실패에 대한 위험성과 파장이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볼 때, 중장년의 능력과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수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실패를 피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행동이며, 위험에 대한 회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일 수도 있다(Kong et al., 2020). 실패의 두려움은 창업의도를 감소시키며, 새로운 벤처를 설립하려는 가치관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Ekore & Okekeocha, 2012; Mitchell & Shepherd, 2010; Wood & Pearson, 2009). 특히 직장인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Kong et al., 2020). 그럼에도 창업가정신 연구에서 실패의 두려움이 주요 관심의 대상인 경우가 드물어 아직까지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Chua & Bedford, 2016; Halim et al., 2023).

창업가에게 있어 성공으로 얻게 되는 명성(prestige)과 사업

실패로 잃게 되는 체면손상(Shame)은 창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적 자의식과 같은 자신을 사회적 대상으로 인식하는(Huang & Wang, 2024)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 상황에서 외부의 부정적 평가로 인해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자신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여기거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Jenkins et al., 2014). 이와 같은 사회적 인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fear of loss of social approval)은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의미론적으로 동일하며, 사회적 인정과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은지·김진숙 2018). 즉 중장년으로서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창업 실패에 따른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창업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결정을 유보(留保)하는 우유부단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 창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우유부단성과 창업 실패의 두려움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관계 사이에서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사회 심리적 요인의 영향 관계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중장년 창업가의 불확실한 의사결정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이 고취(鼓舞)될 수 있는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중장년의 개념

과거 중장년층은 사회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 고학력·고기술을 보유한 중장년들의 조기퇴직,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이슈화되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정홍인, 2018). 중장년이라는 용어는 연령, 범위, 학자, 정부기관, 법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중년, 베이비붐세대, 50+세대, 장년 준고령자 등 관련 기관이나 연구자의 정의에 따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중년 또는 신장년이라는 단어로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강소랑 외, 2018; 지혜순·이영민, 2024). 중장년 용어의 정의는 <표 1>의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중장년층의 범위

법령 및 근거	기준
통계청	만 40세~64세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만 50세~55세 미만은 준고령자 55세 이상은 고령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40세 이상
고용 노동부	만 40세 이상(중장년) 만 55세 이상(신중년, 장년)
Collins Dictionary	40-59세 사이

출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의

본 연구에서의 중장년층은 45세~64세까지로 정의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층 정책대상의 범위를 4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통계청은 중장년층의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서 국낸 거주하는 40세~64세로 중장년층의 연령을 정의하고 있으며, OECD 경제지표에서는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의 가능 연령을 6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윤미·김형빈 2021).

이는 본 연구가 우리나라 창업 의향을 지닌 중장년층의 성격적·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의 목적이 있으므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법령이나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령 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 사회의 직장인 퇴직 연령이 50세 전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층을 45세~64세까지로 설정하였다.

2.2. 우유부단성

우유부단함(indecisiveness)은 결정을 과도하게 지연하거나 위임하는 경향을 의미한다(Elaydi, 2006; Motloun & Lew, 2023). 우유부단함은 의사 결정 상황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는 성격 특성이다(Kokkoris et al., 2019). 이에 관해 Osipow(1999)는 우유부단을 충분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성격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우유부단함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낮은 미래 지향성과 현재 지향성이 우유부단함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와는 반대로 복잡하고 흥미로운 인지 과제에 대한 욕구가 오히려 우유부단함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Díaz-Morales et al., 2008; Motloun & Lew, 2023). 이처럼 우유부단함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하며(van Randenborgh et al., 201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Lauderdale & Oakes, 2021), 결국 우유부단함이란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개인의 부정적 방법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개인마다 ‘불확실한 상황과 사건에 대해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수준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Dugas et al., 2004; Appel et al., 2024). Gianakos & Subick(1986)도 우유부단한 사람은 직업의 결정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여러 측면을 어렵게 하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지니고 있으며, 자아 강도, 자존심, 명확한 정체감 등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김병숙·이준일, 2014). Crites(1969)는 우유부단한 사람은 결정 사항의 경중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삶의 장면에서 의사 결정에 어려운 사람이라 하였다.

우유부단함, 즉 ‘시간과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특성’(Lauderdale & Oakes, 2021)은 많은 문화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Yates et al., 2010; Appel et al., 2024). 특히 의사 결정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선택의 상황에서 필수적인 기능으로 우유부단함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면, 경영상의 의사 결정(Brooks, 2011) 및 경력 의사결정(Germeijs et al., 2006)과 같은 광범위한 의사 결정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다(Kokkoris et al., 2019).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유부단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확증 편향(Rassin et al., 2008), 결정 지연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무반응(Patalano & Wengrovitz, 2007), 결정 도달 실패(정치적 질문에서 ‘모른다’는 답변을 자주 선택함; Rassin & Muris, 2005a), 삶의 만족도 저하(Rassin & Muris, 2005a)등과 같은 품질이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거나 추론과 모호한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kkoris et al., 2019; Rassin & Muris, 2005b). 그러나 우유부단함은 중요한 업무를 미루거나(Ferrari, 1994) 결정 거부, 회피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Appel et al., 2004). Appel et al.(2004)의 연구에 의하면 기질적으로 의사 결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에 직면했을 때는 결정보다 정보 검색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유부단성의 긍정적 측면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2.3. 창업 실패의 두려움

창업 실패는 창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사업 및 조직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수덕(2005)의 연구에서 Watson & Everett(1996)는 실패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사업의 중단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공식적인 파산이다. 법원이 직접 파산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셋째, 사업의 처분을 말한다. 이는 추가적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하는 사업의 중단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지속적 사업 운영의 실패로 인한 경우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수덕(2005)의 논문에서 정의한 사업의 실패 개념을 포함한 창업과 관련한 실패 모두를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창업 활동은 잠재적인 실패의 위험을 일으키는 장애물, 좌절, 어려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 반응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Kollmann et al., 2017; Stroe et al., 2020; Tu et al., 2023). 따라서 개인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식할 때 나타나는 내적 두려움인 실패의 두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Birney et al., 1969; Kong et al., 2020).

실패의 두려움(Fear of Failure; FOF)은 실패에 대한 예상되는 수치심을 바탕으로 평가 상황에서 실패를 피하려는 동기이다(Atkinson, 1957; GeetaSunkarapalli, 2017).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성취동기 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실패 가능성이 있는 평가 상황에서 위협에 대한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일시적인 인지적 및 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Cacciotti, 2015).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성취의 맥락에서 창업가의 인지적, 감

정적, 동기적 속성 사이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적 구성이며, 복잡한 특성을 말한다(Cacciotti et al., 2016, 2020; Tu et al., 2023).

이와 관련하여 Conroy(2001)은 Lazarus(1991)의 인지-동기-관계적인 이론을 통해 실패의 두려움을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정의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평가척도(PFAI: Performance Failure Inventory) 5가지를 개발하였다. 첫째, 수치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을 경험하는 것, 둘째,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절하되는 것, 셋째,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 넷째, 불확실한 미래를 갖게 되는 것, 다섯째,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군가를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패의 두려움을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실패의 두려움은 창업 의도(Arenius & Minniti, 2005), 기회 인식, 활용 결정(Mitchell & Shepherd, 2010)은 물론 재창업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essels et al., 2011). 반면, 실패의 두려움의 긍정적 측면을 주장한 Mitchell & Shepherd(2011)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행동)에 오히려 동기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Rosique-Blasco et al., 2018). 즉 창업가적 업무에 대한 참여를 늘리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Cacciotti & Hayton, 2014; Stroe et al., 2020).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결과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Cacciotti & Hayton, 2015; Kollmann et al., 2017; Tu et al., 2023).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이 가능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고(McGrath, 2001), 학습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며(Shepherd et al., 2011), 더 큰 노력과 노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Mitchell & Shepherd, 2010) 창업가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실패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의 인지적, 행동적 결과는 해로울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다(Stroe et al., 2020). 그러나 아직까지 실패의 두려움이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서 동기적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김영희·양동우, 2021). 따라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4. 공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대상(social object)으로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Fenigstein et al., 1975). 공적 자의식은 자신을 사회적 자기로서 바라보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향이다(최진숙·황금주, 2020). Fenigstein(1979)은 자의식(self-consciousness)이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탐색하는 개인적 기질이라고 하였으며, 자의식의 하위 요인을 사적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과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적 자의식은 주관적인 정서, 사고, 감정, 동기, 가치 등과 같은 자신의 내적 측면에 대한 개

인적 지각이고, 공적 자의식은 외현적인 행동, 신체적인 외모, 정서 표현 등과 같은 자기 자신의 공적인 측면에 대한 자각을 말한다(이강아·홍혜영, 2013).

Fenigstein et al.(1975)는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의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적 자의식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 민감도가 더 높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실제로도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개인(individuals)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이 입는 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지를 걱정(car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zlek et al., 2019; Zarzycka et al., 2024).

선행연구에 따르면, Schlenker & Leary(1982)와 Buss(1980)는 높은 공적 자의식은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근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공적 자의식은 외부의 엄청난 압박을 받으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안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이다(Huang & Wang, 2024; Tanaka, 2023; Wu & Wei, 2008). 실제 연구에서도 사회적으로 불안한 피험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Smith et al., 1983),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자신의 공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McEwan & Devins, 1983; Hope & Heimberg, 1988). 이는 높은 공적 자의식을 지닌 개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높은 외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실패를 의미하는 외부의 부정적 평가를 염려하게 된다.

2.5.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은 평가 상황에서 자신이 우습게 보이거나 부적절하게 보여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한다(기인숙, 2009). 즉 개인이 평가 상황에 처했을 때 경험하는 두려움이다(GeetaSunkarapalli, 2017).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이 올바른 사회적 인상을 줄 수 없다고 느낄 때 관찰되며, 이로 인해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평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다(Aydin, 2008).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거나 평가를 받는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난다(김순희, 2010). 자신이 맞닥뜨리는 사회적 상황 안에서 상대에게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지만, 자신이 의도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일지 의심스럽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될 때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최정훈·이정운, 1994).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본질은 비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대외 이미지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 있다(Huang & Wang,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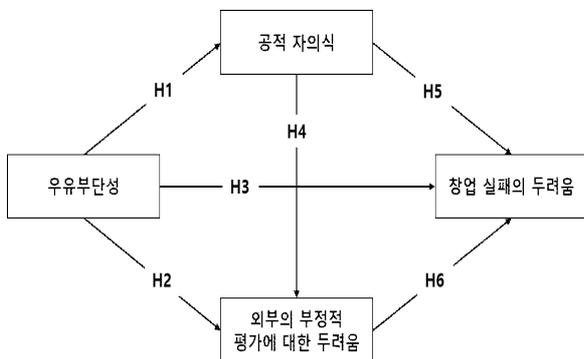
창업가에게 부정적 평가란 창업가로서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에 대한 내적인 부정적 감정과 정서를 통제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하게 된다(Kocovski & Endler, 2000; Stein et al., 2002).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상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Leary et al., 1986). 예를 들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친근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인상을 통제하거나 원하는 인상을 형성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Nezlek & Leary, 2002).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Watson & Friend, 1969). 또한, 다른 사람에게 특별하게 보이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과 불안을 동반하게 된다(김소연, 2015). 이는 자기 불안과 낮은 자존감의 공포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Kocovski & Endler, 2000; Stein et al., 2002).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수행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홍경화·홍혜영, 2011).

III.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 의향을 지닌 중장년의 우유부단함이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의 우유부단성, 공격 자의식, 외부의 부정적 평가와 창업 실패의 두려움의 관계를 검증하고, 우유부단성과 창업 실패의 두려움의 관계에서 공격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가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의 설정

3.2.1. 우유부단성과 공격 자의식

정선경·정남운(2014)은 우유부단한 개인들이 보이는 특성으로 높은 공격 자의식(Swami et al., 2008)과 불분명한 개인적 정체감, 낮은 자기 확신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Salomone, 1982).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선택을 주저하는 공통적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다(Gianakos & Subick, 1986; 김병숙·이준일, 2014). 즉, 타인의 영향으로 인해 우유부단성이 생겨나는데, 공격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 역시 자신의 시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 타인의 기대에 맞도록 행동하고 노력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Fenigstein et al., 1975). 그러나 우유부단함은 사회적 불안, 공격 자의식, 건망증과 관련되어 있지만 지능과는 무관하다(Burnett et al., 1989; Effert & Ferrari, 1989; Ferrari, 1991; Harriott et al., 1996).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우유부단성은 공격 자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우유부단성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

정미희(2020)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결정에 대한 후회와 의심의 반복에서 오는 심리적 불편감을 스트레스로 지각하고, 외적 통제 소재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Salomone, 1982). 외적 통제란 자신의 의사 결정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이는 우유부단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의사 결정 상황에서도 통제 밖의 요인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최정훈·이정윤, 1994).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조롱이나 관계 단절 같은 것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Gianakos & Subick, 1986). 또한,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자신이 맞닥뜨리는 사회적 상황 안에서 상대에게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지만 자신이 뜻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일지 의심스럽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될 때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최정훈·이정윤, 1994). 이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우유부단성은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우유부단성과 창업 실패의 두려움

우유부단함은 의사 결정 과정의 연장 또는 결정을 지연하거나 회피를 시도하려는 경향을 말한다(Check & Goebel, 2020; Motloun & Lew, 2023). 사람이 위험을 회피할수록 실패를 더 두려워하게 되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불확실성 및 위험 회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Kong et al., 2020). Rachman(1976)

는 우유부단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과정갈등, 회피, 중요한 타인의 영향이 높을수록 결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에 대한 압박이 우유부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행동이 옳거나 실패가 없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근거로 우유부단함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orotzkin(1985) 역시 우유부단의 공통적 이유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시하였다(Gianakos & Subick, 1986; 김병숙·이준일, 2014).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우유부단성은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놓일 때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Ferrari et al., 2023; Huang & Wang, 2024). Schlenker & Leary(1982)와 Buss(1980)는 높은 공적 자의식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하였으며(Hope & Heimberg, 1988), Weeks & Howell(2012)은 사회적으로 불안한 개인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모두 두려워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평가에 대한 이중적 공포 모델(Bivalent Fear of Evaluation model: BFOE)’을 제시하였다(Huang & Wang, 2024).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사회적 인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fear of loss of social approval)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회적 인정과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간의 관계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은자·김진숙, 2018). 김순희(2010)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바탕으로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 부족하며, 타인의 피드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높은 외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실패를 나타내는 외부의 부정적 평가를 염려하게 된다(Huang & Wang, 2024; Sajjadi et al., 2023; Shafique et al., 2017; Tanaka, 2023). 이와 같은 논의를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공적 자의식은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공적 자의식과 창업 실패의 두려움

공적 자의식은 스스로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객체로서 인식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 타인의 기대에 맞도록 행동하려고 노력한다(Fenigstein et al., 1975). 따라서 공적 자의식이 높은 개인의

경우 실패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평가되고,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Jenkins et al., 2014).

창업가는 좌절이라는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자기 가치와 능력의 내적 귀인이라는 관점에서 실패에 대한 내생적인 두려움이 생긴다. 이는 수치심과 당혹감,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Tu et al., 2023). Conroy(2001)의 연구에서도 실패의 결과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 평가가 절하되고,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실패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Conroy et al., 2002; Conroy et al., 2007). 이와 같이 실패의 두려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공적 자의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자기로서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와 다른 대상의 관심을 잃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공적 자의식은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6.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창업 실패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은 실패로 인해 발생 되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 평가 상황에서 실패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Atkinson, 1957; GeetaSunkarapalli, 2017). 즉 실패의 두려움은 실패 가능성이 있는 평가 상황에서 위협에 대한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일시적인 인지적 및 정서적 상태를 말한다(Cacciotti, 2015).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의 내부 및 외부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써, 개인마다 반응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개인은 내부 자아의 욕구로 인해 실패가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실패의 외부적 두려움)에 대해서도 염려를 한다(Hao et al., 2022; Tu et al., 2023). 김영희·양동우(2021)도 실패의 두려움은 실패를 피하려는 경향 및 실패의 결과에 따라 타인이 주는 수치와 굴욕감의 위협 및 자극 경험의 용량이라고 하였으며,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3.3.1. 우유부단성

우유부단성은 ‘개인이 확보 가능한 정보의 양적, 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아주 작은 결정에서부터 진로에 관한 결정이나 인간관계 등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타인에 비해 과도하게 고민하고 의심하며 선택 과정에 있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우유부단성은 이선혜(2010)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나는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편이다.’, ‘메뉴를 고르기 어려운 편이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려워서 과제 또는 주어진 일을 완수해낼 때 곤란을 겪는다.’ 등의 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3.3.2. 창업 실패의 두려움

창업 실패의 두려움은 ‘창업 실패 가능성이 있는 평가 상황에서 위협에 대한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일시적인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상태’로 정의하였다(Cacciotti, 2015). 창업 실패의 두려움은 김진오(2020)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나는 창업 실패 시 사업투자자금의 손실이 두렵다.’, ‘나는 창업 실패 시 가족의 안정 및 화목이 깨질까봐 두렵다.’, ‘나는 창업 실패 시 자신감을 상실할까봐 두렵다.’ 등 총 7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3.3. 공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은 ‘자신을 사회적 대상(social object)으로서의 자각으로 외모, 행동, 정서의 외적 표현 등 자신의 공적인 측면에서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Fenigstein, 2009). 공적 자의식은 김인영(2018)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하는 것을 의식한다’, ‘내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을 때 어찌나 하고 걱정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을 많이 쓴다.’ 등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3.3.4.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외부의 부정적 평가는 ‘공적 자의식의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평가 상황에서 자신이 우습게 보이거나 부적절하게 보여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기인숙, 2009). 외부의 부정적 평가는 이시영(2020)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걱정된다’,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걱정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할 때가 많다.’ 등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4.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향후 창업할 의향이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 방식을 결합하여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은 45~64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총 221부를 배포하였으며, 창업 의향이 확인되는 최종 209개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의 성별과 나이, 학력 등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통계처리를 위해 SPSS 26.0과 AMOS 26.0 그리고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확인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의 주요 변인의 특성 및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Descriptive) 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변인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AMOS 26.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χ^2 , TLI, CFI, SRMR, RMSEA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종 타당도가 검증된 변인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변인 간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여 직렬다중매개모형(PROCESS model 6)을 시행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bootstrap 5000번으로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95% 신뢰구간을 활용하였다.

IV.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항목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월 소득의 5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112(53.59%)명으로 남성 97(46.41%)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만 45-50세가 104(49.76%)명으로 가장 많았고, 51-55세, 56-60세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55(74.16%)명이 가장 많았다. 직업은 사무직이 60(28.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영업, 전문직, 서비스 및 판매직, 기술직, 관리자 및 임원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300-500만원 미만이 64(30.6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97	46.41
	여자	112	53.59
연령	만 45세-50세	104	49.76
	만 51세-55세	59	28.23
	만 56세-60세	29	13.88
	만 61세-64세	17	8.1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33	15.79
	대학교 졸업	155	74.16
	대학원 재학 이상	21	10.05
직업	관리자 및 임원	9	4.31
	전문직	27	12.92
	사무직	60	28.71
	기술직	18	8.61
	서비스 및 판매직	21	10.05
	자영업	28	13.40
	기타	46	22.01
	합계		209

연구 대상의 창업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창업희망업종에 따른 분포에서 서비스업이 82(39.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조업과 IT관련이 13(6.22%)명으로 가장 적으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교육이수와 관련해서는 ‘없다’가 177(84.69%)명으로 ‘있다’ 32(15.31%)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컨설팅지원은 ‘없다’가 199(95.22%)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창업지원자금에 따른 분포에서는 ‘없다’가 202(96.65%)명으로 나타나 ‘있다’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은 연구 대상자의 창업 관련 특성이다.

<표 3> 연구 대상자의 창업관련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창업희망업종	제조업	13	6.22
	도소매업	25	11.96
	숙박 및 음식점업	30	14.35
	서비스업	82	39.23
	지식창업	17	8.13
	IT관련	13	6.22
	기타	29	13.88
창업교육이수	있다	32	15.31
	없다	177	84.69
창업컨설팅지원	있다	10	4.78
	없다	199	95.22
창업자금지원	있다	7	3.35
	없다	202	96.65

4.2. 확인적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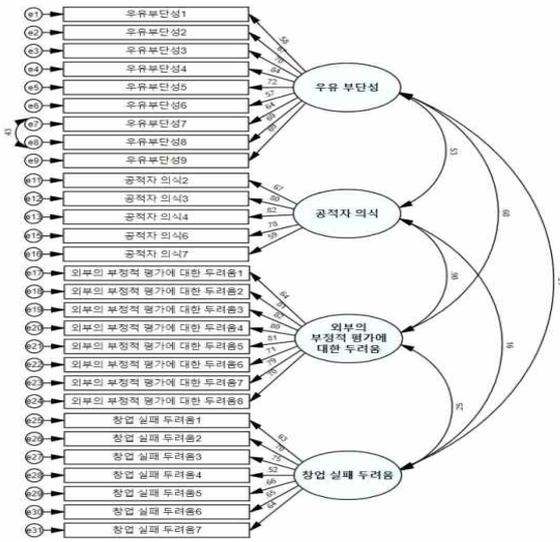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각 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표 4>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확인된 4변인 29 문항의 적합도 검증결과, χ^2 값이 649.631, df 값이 370으로 나타났다. 이 때 p값이 .05보다 작아서 적합하지 않았지만 ($p < .001$),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비교적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문제가 있기에(홍세희, 2000) χ^2 외에 다른 적합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홍세희(2000)에 의하면, 적합도 지수를 평가할 때에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덜 받는 NNFI(TLI), CFI, RMSEA가 대체로 다른 지수에 비해 바람직한 적합도의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해석적 측면에서 볼 때, 연구결과로 RMR보다는 SRMR이 보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강현철,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χ^2 , TLI, CFI, SRMR, RMSEA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TLI는 .904로, CFI는 .912로 적합기준 .9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u & Bentler, 1999), SRMR은 .0627, RMSEA 역시 .060으로 적합기준인 .1 이하 보다 낮게 나타나 기준값을 충족(MacCallum et al., 1996)하여 모든 적합도 지수를 만족함으로써 적합한 모형으로 판별되었다.

<표 4> 1차~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구분	적합도 기준	1차 적합도	2차 적합도	최종 적합도
χ^2		789.044	685.011	649.631
df		428	371	370
p	.05이상	.000	.000	.000
CMIN/df		1.844	1.846	1.756
TLI	.90이상	.882	.892	.904
CFI	90이상	.891	.902	.912
SRMR	08이하	.0651	.0631	.0627
RMSEA	.1이하	.064	.064	.060
RMSEA	Lo	.057	.056	.053
	Up	.071	.071	.068

최종적으로 4개의 변인 29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52~.84로 확인되어 모든 문항이 .5 이상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배병렬, 2000). 또한,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가 .45~.61로 나타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한 요인은 기준인 .5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문항이 기준을 넘지 못하였으나 기준에 근접하고 AVE를 제외한 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항과 요인을 삭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는 .85~.93으로 기준인 .7 이상으로(Hair et al., 2010) 집중타당성이 확인되었다.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신뢰성 검증결과에서도 .83~.82로 확인되어 .6 이상 기준을 넘어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었다.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3.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측정 변인의 기술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정규분포 가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의 절댓값이 3이하, 그리고 첨도의 절댓값이 10 이하일 때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한다 (Kline, 2010).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의 전체 평균은 3.14~3.56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인의 왜도는 -.45~.86, 첨도는 -.22~.91으로 조사되어 우유부단성, 공적 자의식,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창업 실패의 두려움의 정규분포 가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측정된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를 통해 모델의 측정변수 간 밀접한 관계성뿐 아니라, 일부 통제변수들 역시 측정변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5> 기술통계(정규분포 확인) 및 상관분석 확인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우유 부단성	공적 자의식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창업 실패의 두려움
우유부단성	3.39	.67	-.38	.13	1			
공적 자의식	3.56	.66	-.45	.91	.44***	1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3.14	.84	.84	-.22	.61***	.79***	1	
창업 실패의 두려움	3.33	.86	.86	-.21	.19**	.16*	.24***	1

* $p < .05$, ** $p < .01$, *** $p < .001$, (n=209).

4.4.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검증

우유부단성이 창업 실패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6번 model을 이용하여 다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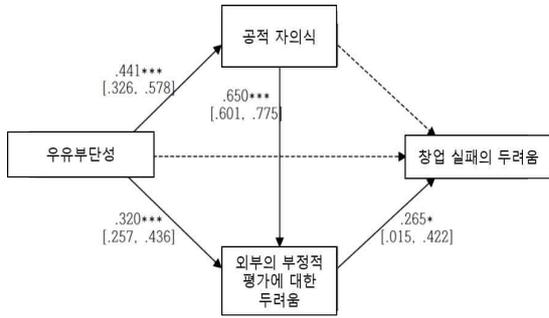
먼저, 우유부단성이 공적 자의식에 .441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95% CI=.578, .326),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7.064, p < .001$). 다음으로 우유부단성이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320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95% CI=.436, .257),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7.645, p < .001$). 또한, 공적 자의식이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650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95% CI=.775, .6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15.535, p < .001$). 마지막으로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265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95% CI=.422, .01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117, p < .05$). 이러한 직접효과들의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표 6>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결과 (PROCESSmacro 6번모델 모델)

변수	Step1 독립→매개1			Step2 독립,매개1→매개2			Step3 독립,매개1, 매개2→종속		
	β	SE	t	β	SE	t	β	SE	t
종속변인	공적 자의식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창업 실패의 두려움		
독립변인	β	SE	t	β	SE	t	β	SE	t
우유부단성	.441	.064	7.064***	.320	.045	7.645***	.065	.076	.763
공적 자의식				.650	.044	15.535***	-.081	.097	-.737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265		2.117*
R ² , F	.194, 49.903***			.709, 250.984***			.209, 15.831***		

* $p < .05$, *** $p < .001$



<그림 3>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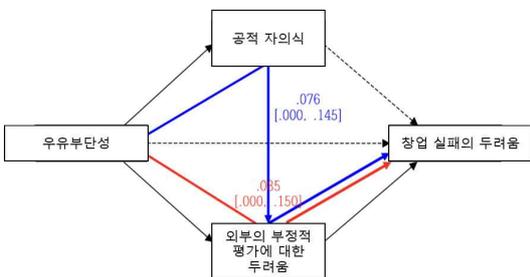
4.5.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총 2개의 단순매개효과와 1개의 직렬다중매개효과가 발생하며 세개의 매개효과들의 합은 우유부단성에서 창업 실패의 두려움으로의 총 매개효과로 볼 수 있으며, 모든 매개효과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95% 신뢰구간의 상한 값과 하한 값 사이에 0의 포함 유무를 확인하였다. 연구 모형의 매개효과들의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결과 (PROCESS macro 6번모델)

매개 효과	독립변인→매개변인→종속변인	β (95% CI)	가설
매개1	우유부단성→공적 자의식→창업 실패의 두려움	-.036 (-.137, .063)	기각
매개2	우유부단성→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창업 실패의 두려움	.085 (.000, .150)	채택
매개3	우유부단성→공적 자의식→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창업 실패의 두려움	.076 (.000, .145)	채택

연구모형에서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단순매개효과는 .085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oot 95% CI=.000, .150). 또한, 우유부단성에서 공적 자의식을 경유하여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거쳐 창업 실패의 두려움으로의 직렬다중매개효과는 .076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oot 95% CI=.000, .145). 연구 모형의 매개효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V.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결과

최근 기업에서 근무했던 중장년들이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창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장년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다(김화희·김동일, 2024). 그럼에도 중장년은 청년 창업에 비해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중장년들의 창업의도를 낮추는 특성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관심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특성인 우유부단성이 창업 의향을 지닌 중장년들의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임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우유부단성과 사회·심리적 요인인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영향 관계도 검증하였으며,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유부단성은 공적 자의식에 정(+)-의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선경·정남운(2014)의 연구에서 우유부단함이 개인의 특성 중 하나인 높은 공적 자의식(Swami et al., 2008)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우유부단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 중장년의 경우 공적 자의식인 사회적 자기에 대해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장년의 우유부단성이 높을 경우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사회적으로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를 염두하고 있다는 의미와도 같다.

둘째, 우유부단성은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정미희(2020)가 주장한 의사 결정 상황에서 외적 통제로부터 오는 심리적 불편감으로 인해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과 일치하였다. 결과적으로 우유부단한 특성이 높은 중장년의 경우 자신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결정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불안함으로 인해 결정에 늦어지거나, 포기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셋째, 우유부단성은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achman(1976)과 Turner et al.(1979)의 주장한 우유부단함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연구에서 우유부단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과정갈등 회피, 중요한 타인의 영향이 높을수록 결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 같은 결과에 근거해보면 창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이 우유부단성이 높은 경우 창업의 성공보다 실패를 더 두려워하여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멈출 수도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결정하지 않는 우유부단한 특성은 오히려 신중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넷째, 공적 자의식은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순희(2010)가 주장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발생하며, 거절당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칠 때, 또는 자신이 부적절하게 보이는 등의 부정적 평가를 받는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주장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공적 자의식이 높은 중장년의 경우 창업에 대한 가족이나 주변 지인 등의 외부의 부정적 평가를 염려하게 되며,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부탁하거나 의뢰할 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공적 자의식은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Conroy(2001)이 제시한 실패의 두려움은 타인에 의해 평가 절하되어 사회적 영향을 상실하거나, 자신이 중요한 누군가가 속상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발생한다는 연구 내용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 공적 자의식은 타인의 시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패와 같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부정적 상황을 두려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장년의 경우 공적으로 자신의 가치나 위치를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적으로 쌓아왔던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이나 가치를 창업을 통해 잃을 수 있어 창업 실패의 두려움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중장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실패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패의 두려움과 선행요인의 영향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실패의 두려움의 연구 대상을 확장하였다는데 이론적인 기여를 하였다. 둘째, 실패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조건 변수와 관련하여 우유부단성의 성격적 특성과 공적 자의식 및 외부의 부정적 평가의 사회·심리적 특성 요인을 추가하여 실패의 두려움의 선행요인을 밝혀냈다는데 이론적 시사점을 지닌다. 셋째, 창업가 정신 분야에서 실패의 두려움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학문적 메카니즘을 제시하였다는데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해 중장년의 우유부단성은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에 이를 근거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패의 두려움의 회피 측면을 가중(加重)시킬 수 있는 우유부단성의 회피적 행동의 영향을 줄이고, 실패의 두려움이 주는 긍정적 측면인 신중한 계획 수립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더불어 중장년으로서 창업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고취(鼓舞)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유부단성의 긍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유부단성의 부정적 측면인 의사 결정을 미루는 것 뿐만 아니라 신중한 행동을 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의 양면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우유부단성은 자신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였을 때는 실패 확률을 낮추게 하는 신중한 행동을 유도하는 특성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세정보가 쉽게 제공된다면 우유부단의 특성 중 신중한 행동을 하도록 돕는 긍정적 측면을 통해 실패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장년 창업과 관련한 조사 결과, 창업 시작 전이나 창업 과정에서 교육이나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창업을 더욱 망설이게 하거나, 오판(誤判)으로 인해 창업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청년 창업과 비교하여 중장년 창업 과정을 잘 이해하고 중장년의 우유부단성을 낮출 수 있도록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중장년의 창업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 훈련센터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의 창업 전문가를 선정하여 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 상담 및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장년 창업은 실패에 대한 위험성과 과장이 높고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청년 창업에서 실패는 자산으로 여기지만 중장년의 창업 실패는 경제적, 심리적 타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원한 실패로 인식하여 재기 불가능 가능성이 높고, 창업자 개인이 아닌 가정 전체의 경제적 곤란을 야기하는 등 과장이 낫다는 점에서 연착륙(soft landing)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이 제시되고 있다(최양애·동학림, 2019; 홍성표·김민희, 2023). 특히 창업은 준비기간 동안 자금, 인력, 장비를 조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연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실패 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많다.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결과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목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년의 창업 준비과정을 상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창업 시뮬레이션 센터의 상시 운영 및 창업 전문가와 미팅을 통해 창업의 문제점 및 대처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창업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물리적 및 인적 지원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중장년의 창업은 제2의 경력관리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식의 제고(提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인해 중장년의 퇴직이나 은퇴를 노동력 상실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중장년은 외부의 시선이나 타인의 부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정한 자기(self)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시기로 본다. 향후 중장년의 창업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장년의 심리

적 위축과 사회적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다양한 불안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반드시 창업은 성공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사고로 위축되기보다는 자신만의 제2의 인생을 개척한다는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창업에 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5.3.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를 통해 중장년의 우유부단성이 창업 실패의 두려움에 미치는 선행 요인임을 규명하고, 공적 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이루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몇 가지 확장하여 연구해볼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데이터 수집에서 동일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기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시점에서 변수들을 각각 측정하여 결과 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측정 방식에서도 단순 설문 측정이 아닌 FGI(심층 인터뷰), 실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장년 예비 창업자의 설문 대상의 특성상 표본의 크기가 작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량의 표본으로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강소랑·서인석·한창목(2018). 서울시 50 세대 유형화 및 특성별 지원 방안.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351-376.

강현철(2013).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합도지수의 해석과 모형적합 전략에 대한 논의. *한국자료분석학회*, 15(2), 653-668.

강유미·김재호(2015). 중장년층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개인자산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0(3), 25-49.

김병숙·이준일(2014). 우유부단형 내담자의 홀랜드 6 각형 모형 일관성 및 계측성 사례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2), 828-837.

김소연(2015). 내면화된 수치심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성식·전병훈(2021). 기업가정신이 과업도전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Baron & Kenny와 Hayes의 검증 방법을 중심으로. *신용카드리뷰*, 15(1), 54-74.

기인숙(2009).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외모에 대한 관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김영희·양동우(2021). 창업실패두려움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6(4), 1-25.

김순희(2010).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불안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

자대학교.

김인영(2018). *대학생의 공적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김진오(2020). *프랜차이즈 종사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고윤승(2019). 융복합시대에 중장년층의 성격 5요인과 창업의도와 의 관계. *한국예술훈합학회*, 37(1), 1-12.

고은지·김진숙(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고등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0), 73-102.

김화희·김동일(2024). 창업 교육이 중장년 창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2(1), 33-38.

배병렬(2000).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대전: 도서출판 대경.

이강아·홍혜영(2013).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4(4), 2271-2290.

이시영(202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학업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이선해(2010). *분리개별화와 우유부단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이재열·하태관(2022). 시니어의 성장·고정 마인드셋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7(6), 89-104.

유순덕·최광돈(2015). 시니어 기술창업을 위한 CBI 추진방안 연구: 핀란드 브릿지 프로그램 기반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3(11), 1-10.

유상정·양혜술(2016). 시니어 창업의사결정유형과 창업지원사업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4), 106-121.

윤미·김형빈(2021).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에 관한 경로분석: 사회적 및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5(2), 53-87.

양경애·하규수(2020). 중장년층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4), 45-55.

양현봉·김정호(2022). 시니어 기술창업 실패와 발전과제: 베이비붐 세대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22(7), 1-157.

장수덕(2005). 실패한 벤처기업의 특성: 사례연구. *경영연구*, 20(2), 21-46.

지혜순·이영민(2024).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중장년 근로자의 일자리 특성 분석: 성별과 연령을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8(2), 39-58.

정미희(2020). 대학생의 우유부단과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목표추구 지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2 (1), 39-57.

정선경·정남운(2014). 분리개별화와 우유부단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387-406.

정윤희(2023). *창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의 우유부단함이 실패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공적자의식과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정홍인(2018). 중장년 사무직 근로자의 성공적 노화의 선행요인과 성공적 노화 인식 간의 관계에서 경력발달과업의 매개효과. *HRD 연구*, 20(3), 143-174.

최양애·동학림(2019). 시니어의 개인 및 사회적 준비도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26(3), 91-109.

최진숙·황금주(2020). 예비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과 공적 자의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전략학*

- 회, 27(1), 15-47.
- 최정훈·이정운(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1), 21-47.
- 홍경화·홍혜영(201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291-319.
- 홍성표·김민희(2023). 중장년 기술창업가의 창업 준비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8(1), 125-140.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161-177.
- 황지영·남정민(2019). 한국, 일본, 싱가포르 시니어 창업가의 기회형 창업수준이 창업성파에 미치는 효과: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4(6), 271-294.
- 한국은행(2024). 2차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Retrieved (2024.07.15.) from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fId=10085515&menuNo=200433&programType=newsData&relate=Y&depth=200433>.
- Atkinson, J. W.(1957). Motivational determinant of risk-taking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64, 359-372.
- Arenius, P., & Minniti, M.(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4, 233-247.
- Appel, H., Krasko, J., Luhmann, M., & Gerlach, A. L.(2024). Intolerance of uncertainty predicts indecisiveness and safety behavior in real-life decision making: Results from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10, 104490.
- Autio, E., Rannikko, H., Handelberg, J., & Kiuru, P.(2014). *Analyses on the Finnish High-Growth Entrepreneurship Ecosystem*. Finland: Alto University Publication Series Business+Economy.
- Aydin, S.(2008). An Investigation on the Language Anxiety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mong Turkish EFL Learners. *Asian EFL Journal*, Teaching Article, Online Submission, 421-444.
- Birney, R. C., Burdick, H., & Teevan, R. C.(1969). *Fear of Failure*. New York, NY: Brooks.
- Brooks, M. E.(2011). Management indecision. *Management Decision*, 49(5), 683-693.
- Burnett, P. C., Mann, L., & Beswick, G.(1989). Validation of the Flinders Decision Making Questionnaire on course decision making by students. *Australian Psychologist*, 24(2), 285-292.
- Buss, A. H.(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an Francisco, SF: Freeman.
- Cacciotti, G.(2015). *Fear of failure in entrepreneurship: a review, reconceptualization and operationalization*. Degree of PhD, Warwick Business School.
- Cacciotti, G., & Hayton, J. C.(2014). Fear of failure and entrepreneurship: a review and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Enterprise research Centre, research paper*, 24(1), 1-62.
- Cacciotti, G., & Hayton, J. C.(2015). Fear and entrepreneurship: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7(2), 165-190.
- Cacciotti, G., Hayton, J. C., Mitchell, J. R., & Allen, D. G.(2020). Entrepreneurial fear of failur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5(5), 106041-106025.
- Cacciotti, G., Hayton, J. C., Mitchell, J. R., & Giazitzoglu, A.(2016). A reconceptualization of fear of failure i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1(3), 302-325.
- Cheek, N. N., & Goebel, J.(2020). What does it mean to maximize? Decision difficulty, indecisiveness, and the jingle-jangle fallacies in the measurement of maximizing.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15(1), 7-24.
- Chua, H. S., & Bedford, O.(2016).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fear of failure and entrepreneurial intent in Singapor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3(4), 319-334.
- Conroy, D. E.(2001).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fear of failure: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PFAI). *Anxiety, Stress and Coping*, 14(4), 431-452.
- Conroy, D. E., Kaye, M. P., & Fifer, A. M.(2007). Cognitive links between fear of failure and perfectionism.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5, 237-253.
- Conroy, D. E., Willow, J. P., & Metzler, J. N.(2002). Multidimensional fear of failure measurement: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2), 76-90.
- Crites, J. O.(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NY: McGraw-Hill.
- Díaz-Morales, J. F., Ferrari, J. R., & Cohen, J. R.(2008). Indecision and avoidant procrastination: The role of morningness-eveningness and time perspective in chronic delay lifestyles.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35(3), 228-240.
- Dugas, M. J., Buhr, K., & Ladouceur, R.(2004). *The Rol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 Etiology and Maintenance*. In R. G. Heimberg, C. L. Turk, & D. S. Mennin (Ed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Effert, R., & Ferrari, J. R.(1989). Decisional procrastination: Examining personality correlate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1), 151-156.
- Ekore, J. O., & Okekeocha, O. C.(2012). Fear of entrepreneurship among university graduates: a psychologic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29(2), 515-524.
- Elaydi, R.(2006). Construct development and measurement of indecisiveness. *Management Decision*, 44(10), 1363-1376.
- Fenigstein, A.(2009). *Privat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In M. R. Leary & R. H. Hoyle (Eds.), *Handbook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Fenigstein, A.(1979). Self-consciousness, self-attention,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 75-86.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 Ferrari, J. R.(1991). Compulsive procrastination: Some self-reported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reports*, 68(2), 455-458.
- Ferrari, J. R.(1994). Dysfunctional procrastin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interpersonal dependency, and self-defeating behavi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673-679.
- Ferrari, M., Beath, A., Einstein, D. A., Yap, K., & Hunt, C.(2023). Gender differences in self-compassion: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mpassionate and uncompassionate self-relating in a large adolescent sample. *Current Psychology*, 42(28), 24132-24147.
- GeetaSunkarapalli, T.(2017).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perfectionism in young adults.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2(5), 53-60.
- Gianakos, I., & Subich, L. M.(1986). The relationship of gender and sex-role orientation to vocational undecided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9(1), 42-50.
- Germeijs, V., Verschueren, K., & Soenens, B.(2006). Indecisiveness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Longitudinal associations and the mediational role of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397-410.
- Hair J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7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Pearson Education.
- Halim, S. K., Hidayat, D., Eni, Y., & Fernando, E.(2023). What is Entrepreneurial Fear of Failure?. *Binus Business Review*, 14(1), 73-84.
- Hao, X., Wang, J., & Chen, X.(2022). Enemy or friend: the two-way impact of fear of failure on opportunity recognition. *Soft Science*.
- Harriott, J. S., Ferrari, J. R., & Dovidio, J. F.(1996). Distractibility, daydreaming, and self-critical cognitions as determinants of indecis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1(2), 337-344.
- Hessels, J., Grilo, I., Thurik, R., & van der Zwan, P.(2011). Entrepreneurial exit and entrepreneurial engagement.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21, 447-471.
- Hope, D. A., & Heimberg, R. G.(1988).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phobi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4), 626-639.
- Hu, L. T., & Bentler, P. M.(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Huang, T., & Wang, W.(2024).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evalua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self-compass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BMC psychology*, 12(1), 128.
- Jenkins, A. S., Wiklund, J., & Brundin, E.(2014). Individual responses to firm failure: Appraisals, grief, and the influence of prior failure experie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9(1), 17-33.
- Kline, R. B.(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ocovski, N. L., & Endler, N. S.(2000). Self-Regulation: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1. *Journal of Applied Biobehavioral Research*, 5(1), 80-91.
- Kokkoris, M. D., Baumeister, R. F., & Kühnen, U.(2019). Freeing or freezing decisions? Belief in free will and indecisiven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54, 49-61.
- Kollmann, T., Stöckmann, C., & Kensbock, J. M.(2017). Fear of failure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bstacles and nascent entrepreneurial activity-An experimental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2(3), 280-301.
- Kong, F., Zhao, L., & Tsai, C. H.(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action: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and role model. *Frontiers in Psychology*, 11, 229.
- Lauderdale, S. A., & Oakes, K.(2021). Factor structure of the revised Indecisiveness Scale and association with risks for and symptoms of anxiety, depression, and attentional control.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39(2), 256-284.
- Lazarus, R. S.(1991). Progress on a cognitive-motivational-relational theory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8), 819-843.
- Leary, M. R., Barnes, B. D., & Griebel, C.(1986). Cognitive, affective, and attributional effects of potential threats to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4), 461-474.
- Liu, W., Pei, H., & Kunpeng, X.(2011). Can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really help entrepreneurship intention? A study based on mix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self-efficacy and perceived risk. *Nankai Business Review*, 5(11), 83-90.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 McEwan, K. L., & Devins, G. M.(1983). Is increased arousal in social anxiety noticed by 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4), 417-421.
- McGrath, R. G.(2001). Exploratory learning, innovative capacity and managerial oversigh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1), 118-131.
- McLeod, S. A.(2008). *Erik Erikson, Psychosocial Stages: Simply Psychology*. Retrieved from <http://www.simplypsychology.org/Erik-Erikson.html>.
- Mitchell, J. R., & Shepherd, D. A.(2010). To thine own self be true: images of self, images of opportunity, and entrepreneurial ac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1), 138-154.
- Mitchell, J. R., & Shepherd, D. A.(2011). Afraid of opportunity: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on entrepreneurial action.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31(6), 1.
- Motloun, M., & Lew, C.(2023). Drivers and consequences of strategic leader indecision: an exploratory study in a complex case.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44(4), 453-473.

- Nezlek, J. B., & Leary, M. R.(2002).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presentational motives in daily social inter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2), 211-223.
- Nezlek, J. B., Mochort, E. & Cypryańska, M.(2019). Self-presentational Motives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Why Do People Dress a Certain Way?. *Journal of Personality*, 87(3), 648-660.
- Osipow, S. H.(1999). Assessing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1), 147-154.
- Patalano, A. L., & Wengrovitz, S. M.(2007). Indecisiveness and response to risk in deciding when to decide.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20(4), 405-424.
- Rachman, S.(1976). The passing of the two-stage theory of fear and avoidance: Fresh possibilit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4(2), 125-131.
- Rassin, E., & Muris, P.(2005b). Indecisiveness and the interpretation of ambiguous situ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7), 1285-1291.
- Rassin, E., & Muris, P.(2005a). To be or not to be... indecisive: Gender differences, correlations with obsessive-compulsive complaints, and behavioural manifest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5), 1175-1181.
- Rassin, E., Muris, P., Booster, E., & Kolsloot, I.(2008). Indecisiveness and informational tunnel vi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1), 96-102.
- Rosique-Blasco, M., Madrid-Guijarro, A., & García-Pérez-de-Lema, D.(2018). The effects of personal abilities and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4(4), 1025-1052.
- Sajjadi, M., Noforesti, A., & Abbasi, M.(2023). Mindful self-compassion intervention among young adults with a history of childhood maltreatment: Reducing psychopathological symptoms, shame, and self-criticism. *Current Psychology*, 42(30), 26227-26237.
- Salomone, P. R.(1982). Difficult Cases in Career Counseling: II--The Indecisive Client. *Personnel & Guidance Journal*, 60(8), 496-500.
- Schlenker, B. R., & Leary, M. R.(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669.
- Shafique, N., Gul, S., & Raseed, S.(2017). Perfectionism and perceived stress: The role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46(4), 312-326.
- Shepherd, D. A., Patzelt, H., & Wolfe, M.(2011). Moving forward from project failure: Negative emotions, affective commitment, and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4(6), 1229-1259.
- Smith, T. W., Ingram, R. E., & Brehm, S. S.(1983). Social anxiety, anxious self-preoccupation, and recall of self-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6), 1276-1283.
- Sorotzkin, B.(1985). The quest for perfection: Avoiding guilt or avoiding sham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2(3), 564-571.
- Stein, M. B., Jang, K. L., & Livesley, W. J.(2002). Heritability of social anxiety-related concern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 twin stud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4), 219-224.
- Stroe, S., Sirén, C., Shepherd, D., & Wincent, J.(2020). The dualistic regulatory effect of 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failure and negative affect: Insights from facial expression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5(4), 05948-105920.
- Swami, V., Sinniah, D., Subramaniam, P., Pillai, S. K., Kannan, K., & Chamorro-Premuzic, T.(2008). An exploration of the indecisiveness scale in multiethnic Malaysi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9(3), 309-316.
- Tanaka, M.(2023). Motivation, self-construal, and gender in project-based learning. *Innovation i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17(2), 306-320.
- Tu, Y., Hao, X., Rosak-Szyrocka, J., Vasa, L., & Zhao, X.(2023). Obsessive passion,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The dual moderating effect of the fear of failure. *Frontiers in Psychology*, 13, 1037250.
- Turner, R. M., Steketee, G. S., & Foa, E. B.(1979). Fear of criticism in washers, checkers and phobic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7(1), 79-81.
- van Randenborgh, A., de Jong-Meyer, R., & Hüffmeier, J.(2010). Decision making in depression: Differences in decisional conflict between healthy and depressed individual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7(4), 285-298.
- Watson, J., & Everett, J. E.(1996). Do small businesses have high failure rat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4), 45-62.
- Watson, D., & Friend, R.(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4), 448-457.
- Weeks, J. W., & Howell, A. N.(2012). The bivalent fear of evaluation model of social anxiety: Further integrating findings on fears of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1(2), 83-95.
- Wood, M. S., & Pearson, J. M. (2009). Taken on faith? The impact of uncertainty, knowledge relatedness, and richness of information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xploitation.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16(2), 117-130.
- Wu, T. F., & Wei, M.(2008). Perfectionism and negative mood: The mediating roles of validation from others versus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2), 276-288.
- Yates, J. F., Ji, L. J., Oka, T., Lee, J. W., Shinotsuka, H., & Sieck, W. R.(2010). Indecisiveness and culture: Incidence, values, and thoroughn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1(3), 428-444.
- Zarzycka, B., Razmus, W., & Krok, D.(2024). Social anxiety, social comparison, self-consciousness, and deconversion in adolescents: a path analysis approach. *Journal of Beliefs & Values*, 45(1), 101-115.

The Impact of Indecisiveness in Middle-Aged and Older Prospective Entrepreneurs on their Fear of Startup Failure*

Jin Sook, Choi**
Yun hui, Jeong***

Abstract

Recently, with the retirement of baby boomers, middle-aged and older people's entrepreneurship has become an issue that is receiving attention as a second career. However, existing literature has mainly focused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r entrepreneurial performance of middle-aged and older people, and above all, there is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antecedent factors that make it difficult for middle-aged and older people to start a busines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 of middle-aged and older people's indecisiveness preparing for starting a business on their fear of failure in starting a business. In addition, it aimed to verify the effects of public self-awareness and negative external evaluation as antecedent factors that affect the fear of failure of prospective middle-aged and older entrepreneurs. For empirical analysis, a survey was conducted on 221 men and women aged 45 to 64 who were willing to start a busines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indecisiveness significantly affected public self-awareness, negative external evaluation, and fear of failure in starting a business. In addition, public self-awareness and negative external evaluation were confirmed to be related to the fear of failure in starting a business. All hypotheses were supported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verific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t reinterprets the negative aspects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decisiveness and fear of failure in starting a business from a positive perspective,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resolving the indecisiveness and fear of failure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preparing to start a business.

Key words: Middle-aged preparing for a start-up, Indecisiveness, Public self-consciousness, Fear of external negative evaluation, Fear of failure in starting a business

* This paper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based on the master's thesis (2023) of co-author Jeong Yun-hee from the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at Chung-Ang University.

** First Author,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Knowledge Management, Jung-Ang University, esmile2001@nate.com

*** Senior Researcher, Center Director, Bucheon City Dream work center, mrsson0@naver.com